

## 중국 조선족 전통복식의 변화연구 ( I )

- 일상복을 중심으로 -

임혜순<sup>†</sup>

중국 연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Alteration of traditional costume of Korean Chinese ( I )

- Focused on the daily wear -

Huishun Lin<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 Design, Yanbian University, China<sup>†</sup>  
(2020. 10. 30 접수; 2020. 12. 13 수정; 2020. 12. 17 채택)

#### Abstract

Korean Chinese, immigrants to China, have developed their own traditional costume cultu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raditional costume culture of the Korean Chinese and to provide data for posterity. Th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survey research, and analysis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hanges over generations, the top of women's Hanbok has changed in length as has the jeogori (jacket), the git (collar), and the gooreum (breast-tie). The width of the git, dong-jeong (thin white cloth-covered paper collar of Hanbok), the sleeve, and gooreum have also changed. The git and the barae (the curve part of the sleeve) have changed from straight patterns to curves. The skirt had changed in wrinkles arrangement, length, and silhouette. The men's Hanbok jeogori and sleeves were lengthened; the pants became wider and were lengthened, and the collar also became curved. The vest has not changed and the du-ru-ma-gi (coat) that once disappeared is being worn again; the bae-ja (vest) and magoja (over-jacket) are worn frequently in modern times. The garments mainly used natural fiber until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fibers, but the trend has been the use of luxurious natural fibers in modern times. The initial color pattern was achromatic, but that changed with the appearance of synthetic fibers, and nowadays it is mainly the garment can display a variety of colors. In addition, hairstyles and shoes have been evolved from traditional to modern styles.

*Key Words:* Korean Chinese(조선족),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 alteration(변화), daily wear(일상복)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uishun Lin  
Tel. +86-133-0443-4680  
E-mail : hshlin@naver.com

## I. 서론

중국 조선족 전통복식은 조선족 문화의식형태의 주요한 표현수단이며 이주민으로서의 조선족이 중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오랫동안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형성된 고유의 복식문화이며, 나아가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Auguste Comte는 변화는 항상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며 때에 따라서는 필연적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연구가 사회발전은 물론 인간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장순애, 1999). 또 한 심리학자 Hurlock은 어떠한 관념이 어떠한 근원에서 발생함을 막론하고 그 시대의 복식에 예민하게 반영되며 국가의 정치적 체제에 따라서 복식의 색상, 디자인, 디테일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구, 김순심, 1993).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이주 초기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청나라조정의 강제적 민족 동화정책, 일제의 약탈과 봉건 군벌의 억압착취에 맞서 용감히 투쟁하면서 대를 이어 피땀으로 개간한 땅을 고수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한 이후 기타 55개 민족과 함께 어우러져 중국 공민으로 살아가면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언어, 주거, 복식, 민속 등 고유의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켜내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시켜나갔다.

조선족 전통복식의 기원은 한반도이며 중국에서는 “조선민족복식”이라 불리고 조선족들은 “한복”이라 칭한다. 여성의 복식은 웃옷인 저고리, 아래옷인 치마와 바지, 그리고 겹옷과 머리쓰개, 신발, 장신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성의 복식은 웃옷인 저고리, 아래옷인 바지, 그리고 두루마기, 머리쓰개, 신발, 장신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조선족 전통복식의 복식구성은 한반도에서 삼국 시기부터 조선조 말까지의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형태이며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할 당시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김춘선, 김철수, 2010).

조선족 전통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구와 김순심(1993)은 혼례복을 중심으로 한 중국 조선족의 복식연구에서, 조

선족은 1940년대 이전까지는 한반도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혼례복을 착용하였으나 1990년대까지 시대별로 신랑의 혼례복은 양복, 중산복, 인민복, 양복의 순으로 바뀌었으며, 신부의 혼례복도 원삼을 착용하였다가 저고리와 치마로 바뀌었고, 복식의 형태, 색상, 옷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정인희(1996)는 연변 조선족의 의생활에 나타난 문화주변현상(Cultural marginality, 자체의 고유한 문화가 타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란 변수의 기능에 의해서만 변화하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초기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뜻함)과 외래문화의 영향연구에서, 한복의 착용은 조선족이 이주 당시 가지고 간 문화가 고형의 상태로 유지해 온 문화주변현상으로 설명되나, 점차 일상생활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장순애(1999)는 연변 조선족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한복은 일상복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주로 혼례복이나 행사복으로 착용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장순애와 김진구(2004)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의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흑룡강성 조선족의 일상한복 및 무용복은 북한화 경향이 뚜렷하였다가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복의 형태, 색상, 소재와 장신구 등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규명하였다. 백가(2015)는 중국 조선족의 여자 한복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족의 일상한복과 의례 복식은 한반도의 고유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기별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의 전통복식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연구 시기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범위도 여자 한복과 혼례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1990년대를 제외한 다른 시기나 2000년대 이후 시기와 남자 한복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복식은 민족에 따라서 달랐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 조선족은 이주민으로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나 여전히 한민족의 뿌리를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변화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본문은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한 변화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복식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며 관련 분야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문의 연구범위는 해방 전 시기(19세기 말~1948), 신중국 시기(1949~1965),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 개혁·개방 시기(1978~2020) 총 네 시기로 나누어 전통복식 중 남녀일상복인 저고리, 치마, 바지, 조끼, 배자, 마고자, 두루마기 종류를 주로 다루고 복식의 형태, 색채, 소재, 머리 꾸밈새, 신발 등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남자복식연구를 추가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한 자료수집과 인터넷 자료, 방문 조사에 의한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수집장소는 중국 길림성 연변 주 도서관, 연길시도서관, 연변대학교도서관, 연길시 369 낚은 책 시장 등 장소이다. 방문 조사장소는 길림성 연길시, 룡정시, 도문시, 훈춘시, 료원시 등이며 방문 조사대상은 30대 후반~80대 중반의 여성 31명, 남성 26명, 총 57명이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9년 7월~2020년 6월이며 분석연구에 이용한 도판자료와 사진 자료는 총 481장이다.

## II. 20세기 중국의 사회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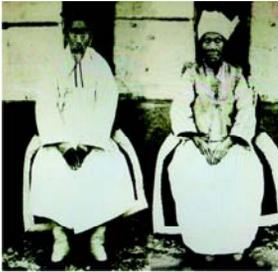
### 1. 해방전 시기(解放前时期, 19세기 말~1948)

중국의 해방전 시기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1900년 날로 쇠퇴해가는 청나라 정부는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8개국 연합군에 의해 불평등한 신축조약(辛丑条约)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식민 통치의 국면을 맞게 되었고 중국 사회는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품은 애국인사들은 연이어 1910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을 시작으로, 신문화운동(新文化运动), 5·4운동(五四运动) 등 혁명을 일으켜 부패한 청나라의 통치를 뒤엎고 2천 년간의 군주통치제도를 결속 지었으며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정치, 경제와 사상문화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건이 후 중국 인민들은 중국공산

당의 통솔하에 전면적인 반제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1931년 일본은 중국에서 9.18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지역을 침략하고 위만주국(伪满洲国)을 세웠으며 1937년 로구교사변(卢沟桥事变)을 일으켜 중국 인민들은 1945년 일본이 투항하기까지 간고한 8년간의 항일전쟁 시기를 겪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협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1949년까지 치열한 국내해방전쟁을 거쳐 최중승리를 거두었다(<http://www.baidu.com>, 2020). 이렇듯 중국에서의 20세기 전반기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청나라 정부, 봉건 통치자들의 민족적 차별과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황무지개척과 수전 농사를 개발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농업구조를 바꾸어 놓았으며 공산당의 통솔하에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김춘선, 김철수, 2009).

### 2. 신(新)중국 시기(新中国时期, 1949~1965)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중국 역사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고 새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섰음을 표징 한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 강요>를 실행하면서 소수 민족에게는 평등자치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족구역자치정책을 국가의 하나의 근본 제도로 삼았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를 건립하였고 1958년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을 건립하였다(김춘선, 김철수, 2008).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축고고달프고 가난했던 조선족 소작농과 농업노동자가 자작농으로 변신하여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의 포용적인 소수민족정책에 의하여 연변에는 연변대학이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진행하였고 각종 조선족 민족 문화, 민족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로써 조선족의 민족문화는 국가의 정치, 법률의 보장을 받게 되었고 민족 복식도 보호받고 계승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1〉 1920년대 조선족  
이주민의 모습

(출처: 중국 조선족의 여자한복에 관한 연구  
(p.45-46) 백가.  
2015,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그림 2〉 이주초기 귀화입적한  
조선족 아동들

(출처: 중국조선족통사(상권, p.1)  
김춘선, 200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그림 3〉 러시아북장차림의 조선족  
이주민들

(출처: 중국조선족통사(상권, p.17) 김춘선, 200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3. 문화대혁명 시기(文化大革命时期, 1966~1976)

1966년~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지도자에 의해 착오 적으로 진행된 혁명이며 일부 반혁명집단에 이용되어 중국공산당과 국가,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준 국가적 내란이다(http://www.baidu.com, 2020).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사회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문화사업도 전체업무가 파괴되고 마비되었으며 전문인력 교육도 장기간 중단되었으며 민족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명승고적, 그리고 각종 문화유산도 대대적으로 파괴되었다(전명용, 1998).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구사상, 구문화, 구풍습, 구습관”을 소멸하는 “파사구(破四旧)”라는 운동을 진행하였기에 양복, 치파오나 민족 복식을 입지 못하게 하고 획일화된 군복이나 인민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서양 사회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폐쇄화 된 특징을 나타내어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이 늦추어졌으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조선족 전통복식이 일상 복식으로의 역할을 잃게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평상시에는 전통복식을 착용하기가 힘들었고 명절, 결혼식과 같은 특수한 날에만 전통복식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전통복식은 일상복에서 예복으로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 4. 개혁·개방 시기(改革开放时期, 1978~2020)

개혁·개방정책은 중국공산당이 덩샤오핑(邓小平)

의 지도체제 아래 1978년 개최한 제11차 3중 전체 회의에서 제기한 전략정책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대외개방의 첫 번째 기본국책이다. 이 정책은 새 중국이 건립된 이후 29년간에 걸친 계획경제체제 시대를 종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시대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전면적인 체제전환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회복하였다. 그중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의 장기적 대외적인 봉쇄정책을 개혁시킨 것인데, 이로써 국민의 생활 수준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고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 시켰으며 경제의 고속발전 시기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면모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정안, 이동훈, 2008).

개혁·개방 정책 실행이 후 서양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단조로운 중산복, 인민복, 군복을 점차 벗어버리고 간편한 서양식 캐주얼 복식을 많이 착용하였다. 조선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간 평상시에 전통복식을 착용하지 않았던 생활방식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더는 전통복식을 평상복으로 착용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전통복식은 오로지 예복으로만 착용하게 되어 각종 의례나 명절,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전통복식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지만 연길시에는 전문적으로 한복을 만드는 옷 공장이 나타났다.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정식으로 수교하였으며 수교 후 양국의 경제무역과 왕래가 급격히 빈번

하였고 조선족들은 한국으로의 노무수출, 친인척 방문 등을 통하여 한국과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선족들의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은 현저히 제고되었으며 전통 복식문화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중국의 산업은 준비기, 전환기와 발전기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급속히 변화하였다. 국내 총생산량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인민들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의류산업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문화개방 및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점차 강화되었고 예술의 표현형식도 다양화되었으며 무엇보다 56개 민족의 전통 복식문화도 문화재로서 보호받고 이를 통한 예술의 창조적 가치가 중요시 되었다(여월, 2011). 조선족 전통복식은 2008년에 국가문화유산목록에 등재 되었다.

### Ⅲ. 20세기 초기 조선족의 복식형태

의복에 있어서 조선족은 월경(越境)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이주할 때 조상 전래의 민족 복식을 입고 왔다. 이주 초기에는 전통적인 조선풍속을 유지하여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에, 겹옷으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에 속바지(그림 1)을 입었다(박경휘, 1994). 조선족의 복식형태는 20세기 40년대까지는 한반도와 대체 적으로 비슷하였으나 나라가 다르고 사회 환경이 다르므로 복식의 역사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1894년(갑오년)에 복식개혁을 하면서 도포와 창옷을 금지하고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였으나 조선왕조의 이러한 복식에 관한 일련의 규제는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하여 조선족은 20세기 30년대까지 향교(學校) 행사나 마을 제사 같은 중요한 의례행사 때에 여전히 도포를 착용하였으며 창옷은 신라의 혼례복으로 40년대까지 착용하였다. 또 한 한반도에서는 1895년(을미년)에 단발령을 내려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자르도록 하였으나 조선족은 1917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으로 단발 풍조를 일으키기 시작하

였다(현규환, 1976).

조선족은 비록 복식방면에서 조선왕조 복식제도의 제약을 받지는 않았으나 중국 지방정부의 동화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시련을 겪었다. 광서(光緒) 16년(1890년, 경인년)에 청나라조정에서는 치발역복(剃髮易服) 정책을 실행하여 조선 이주민들에게 만족(滿族: 청나라를 지배했던 민족)식으로 머리를 깎고 만족 옷(그림 2)을 입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불복하는 자들은 중국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만족 옷을 입고 머리를 깎았으며 농촌에서는 대표를 내세워 치발역복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경작지를 소작 맡았다. 청나라 말기에 압록강 북안 일대의 조선족 중 평민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으며 아이들은 모두 붉은색 혹은 녹색의 색상 옷을 입었다. 또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거나 감쌌다. 말총으로 만든 갓(흑립)을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 한의, 풍헌(風憲: 법을 주관하는 관리)이나 마을 대표들이었다(Zhang, 1909).

1907년의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연변의 조선족 중 2/10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시베리아로부터 이주해왔는데 그들은 근대문화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사람들을 모방하여 머리를 깎거나 하이칼라를 하였다. 옷은 “서양식 절반에 조선식 절반”인 옷을 입거나 조선옷을 입었다. 1/2의 사람들은 봉건 지주의 소작농으로서 “상투를 쪽지고 다른 민족 옷을 입고, 머리 태를 땅고 흰옷을 입었는데 청나라 사람과 같았다. 땅이 없어 소작농으로 있으면서 청나라조정의 각종 세금을 바쳤지만 많은사람들은 여전히 “흰옷에 검은 갓”을 쓰고 다녔다. 러시아와 인접한 흥개호 일대의 조선족들도 대부분이 조선옷을 입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루바스까”(그림 3)라는 러시아 옷을 입기도 하였다(심영숙, 2016).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자들은 양복을 입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단동 지방에서는 양복을 입는 사람이 조선보다 많았다. 조선옷을 입는 사람들에 대해 일본인들이 “불량선인(위험한 조선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중국 옷차림을 하였다. 단동 일대에는 여름철에 일본 옷을 입고 계다를 신는



〈그림 4〉 1920~1930년대 룡정 소시장의 조선족들

(출처: 중국조선족통사(상권, p.12) 김춘선, 200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그림 5〉 1931년 룡정의 조선족들

(출처: 화가 석희만의 생애와 작품세계(p.41) 리승룡, 2009,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그림 6〉 1930년대 일상복차림

(출처: 길림성 료원시 림동주씨 제공)



〈그림 7〉 1930년대 이주민의 모습

(출처: 중국조선족의 여자한복에 관한 연구 (p.46)백가, 2015,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그림 8〉 1940년대 두건을 두른 여인과 단발머리의 학생들

(출처: 중국조선족통사(중권,p.2.) 김춘선, 2009,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그림 9〉 1930년대 조선족의 일상복식

(출처: 길림성 료원시 림동주씨 제공)

조선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연변 일대의 농촌에서는 여전히 흰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쓴 사람이 많아(그림 4) 이곳에 오면 마치 조선 내지에 온 것 같았다(훈춘현지, 1926). 봉계군별정부는 1927년 1월부터 조선족에 대한 구축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해에 발표한 〈길림성 및 동 삼성 특별 구 장관 명령(吉林省及东三省特别区长官命令)〉에서는 “특별구내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며 중국 옷 혹은 양복을 입어야 한다(제3 조항). 이런 규정을 어기는 자는 즉각 축출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의 전통복식에 대한 일련의 금지정책을 실행하였지만 많은 조선족은 계속 본 민족의 전통복식을 착용하였다(그림 5)(Wang, 1929).

#### IV. 전통복식의 변화과정 및 특징

##### 1. 해방전 시기(解放前时期, 19세기 말~1948)

해방전시기 조선족의 전통복식은 한반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는데 여자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일상복으로 착용하였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외출 시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였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든 적삼과 흠치마를 입고 겨울철에는 솜저고리와 안에 털을 넣은 덧저고리, 양털배자와 같은 방한용 의복을 착용하였다. 배자를 “등거리”라고도 하였는데 노인들은 추운 계절에는 상의 위에 털배자(그림 1)를 즐겨 입었다(Qian & Jin, 1996).

여자들의 저고리는 약간 길어서 허리선에 달하였다. 소매의 폭과 수구는 넓고 배래선은 직선을



〈그림 10〉 연변박물관에 소장된  
삼회장저고리

(출처: 중국조선족민속학책(p.80)김남철, 2015.  
북경: 금릉래문화매체유한회사.)



〈그림 11〉 1950년 중산복차림의  
조선족남성들

(출처: 길림성 룡정시 개산투진  
주명자씨제공)



〈그림 12〉 1965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길림성 룡정시  
김옥금씨 제공)

이루었다. 저고리의 옷깃은 넓었고 길이가 짧았으며 동정은 흰색으로 넓었으며 저고리의 도련은 곡선을 이루었고 옷고름의 길이는 짧았다(그림 6). 치마는 좁고 주름은 많지 않았고 길이가 짧았으며 짧은 통치마(그림 7)를 착용하였다.

속옷으로는 속속곳과 단속곳을 입었으며 가랑이가 넓고 크기가 크며 길이는 치마보다는 짧았다. 노인들은 하의의 맨 안에 밀 트임 있는 바지를 애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속옷들은 흰색 삼베나 무명으로 지어졌다(백가, 2015).

머리 꾸밈새는 미혼인 여자들은 땡은 머리를 하고 제비부리 땡기를 드리운 땡기 머리를 하였고, 기혼인 여자들은 쪽을 진 머리카락이나 없은머리(그림 7)를 주로 하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젊은 여자나 여학생들 사이에서 단발머리가 유행하였으며 기혼여자들이나 노인들은 머리 위에 흰색 두건(그림 8)을 둘렀다(박경휘, 1994).

신발은 여름에는 맨발로 짚신이나 미투리를 신었고 겨울에는 면직물인 버선을 토스레천으로 감싸고 짚신이나 미투리를 신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고무신을 많이 신었다.

옷감은 베, 무명, 모시 등이 위주였고 비단과 모직품도 있었으며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광목천도 있었다.

색상은 1930년대 이후에는 검정, 회색, 황토색, 옥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옷을 점차 입기도 하였으나 1945년 이전까지는 남녀를 막론하고 흰색 옷을 가장 많이 입었다. 특히 여자들은 30세가 넘으면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않는 습속이 있어서 중년에 들어서면 모두 흰옷을 입었다(훈춘현지, 1926).

남자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저고리, 바지, 조끼(그림 9), 두루마기 등을 착용하였으며 특히 두루마기는 예복용으로 여겨 부유층이나 일정한 신분을 가진 남자들은 외출 시 반드시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평소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된 흰색 저고리를 많이 착용하였고 저고리의 소매가 비교적 짧았다. 여름에는 모시로 만든 얇은 적삼을 입고 바지는 길이를 조금 짧게 하고 통을 좁게 한 고의를 평상복으로 입어 행진(行纏)을 매지 않고 바지부리를 접어 올렸다. 겨울에는 솜을 넣은 두루마기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반드시 행진을 매었다(김순심, 1994).

머리 꾸밈새는 5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상투를 쪽진 사람이 많았고 50세 이하의 중·청년들은 하이칼라 머리를 하거나 삭발 머리를 하였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조선족 남자들은 외출 시 흑립을 썼고 겨울에는 방한용으로 휘항을 쓰고 그 위에 흑립을 썼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외출 시 흰색 두건을 머리에 둘렀다. 이런 풍속은 1930년대까지 이어졌고 그 후에는 차츰 사라지고 헌팅캡, 학생모, 예모 등이 나타났다(박경휘, 1994).

1930년대에는 남자 청년들이나 지식층 사이에서 중산복과 양복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45년 항일전쟁 승리 이후 중산복과 양복을 일상복으로 즐겨 입었고 특히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만 여전히 한복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김순심,

1994).

해방전 시기의 조선족 남녀 한복의 형태, 색상, 소재, 머리꾸밈새, 신발 등 종류와 특징은 <표 1>과 같다.

## 2. 신(新)중국 시기(新中国时期, 1949~1965)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신중국 시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 저고리의 경우, 처녀들은 단색저고리를 입었고 시집갈 나이가 되면 보라색 또는 저고리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 명주로 깃에 회장을 댄 일 회장저고리(연변에서 사용하는 명칭)를 입었고 시집을 가면 깃, 소매 끝동, 옷고름에 회장을 댄 이 회장저고리(연변에서 사용하는 명칭, 반회장저고리를 뜻함)를 입었다. 특히 이 시기 여자들의 저고리 중 깃, 소매 끝동, 옷고름, 겨드랑이에 회장을 갖추어 댄 삼회장저고리가 있었는데 이 삼회장저고리는 시집간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만 입을 수 있었다. 현재 연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삼회장저고리(그림 10)는 자주색 혹은 붉은색 천으로 깃, 고름, 결마기와 소매 끝동에 회장을 달았는데 녹색, 자주색, 붉은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보기 좋게 지어졌으며 조형이나 색채의 조화로움과 대비가 선명하면서도 우아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 여성 두루마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이든 여자들은 여전히 길이가 긴 저고리를 착용하였지만 젊은 여자들은 전 시기보다 길이가 짧아진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형태는 넓고 긴 옷고름, 넓고 곡선형을 이룬 배래, 변화가 없는 옷깃, 동정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공존하였다. 저고리의 도련은 곡선이 거의 보이지 않고 직선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 시기에 민저고리는 여전히 많이 입었으나 옷깃과 소매의 끝동, 고름이 자주색으로 된 반 회장 저고리를 즐겨 착용하였다.

나이든 여자들은 여전히 저고리 위에 배자(등거리)를 즐겨 입었다. 배자는 대부분 무늬가 있는 비단과 모직물, 스웨이드 등 고급 옷감으로 만들었으며 추운 계절에는 안감을 양가죽이나 양털, 혹은 토끼털로 만들어 입었고 여름에는 두 개의 타원형 호박 단추를 달아서 입었다. 배자의 색상은 회색이나 갈색, 남색 등 다양하였고 겹옷으로 마고자를 입기도 하였다.

치마의 길이는 종아리를 가리는 정도이고, 치마는 전 시기보다 폭이 넓고 주름이 많아졌다. 꼬리치마도 나타났는데 “폴치마”라고 부르며 예식과 나들이 때에 입는 옷으로서 회장저고리와 함께 입었다.

속옷은 일제강점 시기에 입었던 몸빼를 단속곳과 속속곳 대신에 착용했던 것처럼 편직물공장에서 만든 내복 종류의 내의를 입었으며 이는 몸빼와 비슷한 형식의 통이 넓은 바지나 허리에 고무줄을 넣거나 발목에 넓은 커프스를 댄 바지를 착용하였다.

옷의 배색은 치마와 저고리에 동색 배색 대신 이색배색방법을 사용하였다. 색상은 연분홍색, 자홍색, 황색, 미색, 남색 등으로 다양하였다.

옷감은 면직물인 무명, 광목, 옥양목 등이 위주였고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입기 시작하였는데 나일론, 양단, 벨벳, 명주에 무늬를 넣은 소재로 만든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다. 농촌에서는 여름에는 모시로 만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비단이 흔하지 않은 시기여서 결혼식에서만은 비단으로 된 혼례복을 입었다(백가, 2015).

머리꾸밈새를 보면, 해방 초기에 전국적으로 “해방머리”라고 부르는 단발머리가 유행하였고 미혼인 여자들은 길게 땀아 머리를 양쪽으로 늘어뜨린 양 갈래머리나 한 가닥으로 땀아 늘인 외태머리를 하였다. 중년층이나 기혼여자들은 대부분 퍼머넌트를 많이 하였다.

신발은 여전히 전통적인 짚신, 미투리와 나막신을 신는 경우가 많았지만 1950년대에 룡정시에 고무공장을 설립하고 연길시에 민족 옷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는 남녀구분 없이 코고 무신과 천신을 신기 시작하였고 겨울에는 고무장화를 신었고 양말은 전통버선을 대신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남자복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보편화 된 의복인 “중산복” <그림 11>을 착용하였으며 조선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장년층은 거의 모두 중산복을 착용하였다. 전통적인 의복은 일부 나이든 남자들에게서 발견될 뿐이었다.

남자복식의 옷감은 삼베로 만들었고 색상도 점차 많아져서 미색이나 황색, 회색, 흰색, 담청색 등 다양하였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저고리나



〈그림 13〉 1975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길림성 연길시 김부림씨 제공, 2020.)



〈그림 14〉 1982년대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길림성 연길시 김부림씨 제공, 2020.)



〈그림 15〉 1984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길림성 룡정시 황금복씨 제공, 2020.)



〈그림 16〉 1983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길림성 룡정시 김옥금씨 제공, 2020.)



〈그림 17〉 1989년 한복차림의 조선족남성  
(출처: 중국조선족민속사진록(p.55) 중국연변조선생태문화발전회, 2012,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그림 18〉 1981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연극인들  
(출처: 길림성 연길시 한미화씨 제공, 2020.)

바지에 숨을 넣고 지었고 여름에는 얇은 천으로 지어 입었다.

남자 겂옷을 보면, 여전히 전통복식을 고집하는 남자들은 저고리 위에 마고자를 입었으며 주로 봄, 가을에 즐겨 입었다. 이 밖에 겂옷으로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여 홀두루마기, 겂두루마기, 솜두루마기가 있었고 소재로는 마, 무명, 비단으로 비교적 다양하였고 색상도 흰색, 회색, 검은색, 갈색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1950년대 이후로는 두루마기가 점차 사라지고 겂옷으로 스포링코트가 유행하였다.

신중국 시기의 조선족 남녀 한복의 형태, 색상, 소재, 머리꾸밈새, 신발 등 종류와 특징은 〈표 1〉과 같다.

### 3. 문화대혁명 시기(文化大革命时期, 1966 ~1976)

이 시기에는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국가의 강압에 의해 사회 전체에 만연해진 “인민복”이라는

복식을 유일한 일상복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지 못하였다. 하여 이 시기는 조선족 전통복식발전의 공백기이기도 하며 복식의 변화가 전 시기에 비해 크지 않았다. 한복은 특별한 행사나 결혼 시에만 착용할 수 있었는데 여자들은 여전히 저고리와 치마를 주로 착용하였고 한복의 형태는 전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사소한 변화는 있었다.

저고리 옷깃 길이는 짧아지면서 동정의 길이도 짧아졌고 넓이는 더 넓어졌으며 옷고름의 나비도 전 시기보다 높게 달았다. 저고리는 민저고리 위주였지만 반회장저고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2).

치마는 통치마 위주로 폭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한복을 착용할 때 장식품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앞가슴에 모우쩌똥(毛泽东) 주석의 배찌를 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경제 수준이 높지 못하여 옷감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면직물과 마직물을 많이 사용



〈그림 19〉 1984년 김하림,  
최순복부부

(출처: 김립성 훈춘시 김화씨 제공, 2020.)



〈그림 20〉 1990년대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들

(출처: <http://www.baidu.com>, 2019.)



〈그림 21〉 1995년 한복차림의  
조선족 여성

(출처: 中国少数民族服饰(p.37)韦荣慧, 2004,  
北京: 中国画报出版社)

하였으며 무명이 대부분이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명주로 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었으며 문화대혁명 후기에는 화학섬유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인 디취량(的确良)과 벨벳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

색상이 화려한 복식을 입으면 “부르조아의 잔재”라는 약명 때문에 전반적으로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기본으로 많이 착용하였다.

머리꾸밈새는 주로 땅은 머리를 많이 하였고 젊은 여자들은 짧은 양갈래 머리를 하거나 외태 머리를 땅고 앞머리는 내렸다. 퍼머넌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고 나이든 여자들은 여전히 쪽진 머리카나 단발머리를 하였으며 뒷머리는 쪽을 짓고 앞머리만 부분 퍼머넌트를 하였으나 문화대혁명 후기에는 퍼머넌트가 다시 유행하였다.

신발로는 한족이나 만족의 영향을 받아 수공으로 신 바닥을 촘촘히 꿰매고 겉면은 검은색 천으로 만든 천신(布鞋)을 주로 신었고 군인들이 신는 녹색 해방화(解放鞋)도 많이 신었다. 더운 여름에는 비닐로 만든 샌들을 신기도 하였다. 전통신발이나 굽 높은 구두를 거의 신지 못하였고 한복을 입을 때만 흰색 코고무신을 신을 수 있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선족 남녀 한복의 형태, 색상, 소재, 머리꾸밈새, 신발 등 종류와 특징은 〈표 1〉과 같다.

#### 4. 개혁·개방 시기(改革·开放时期, 1978~2020)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1978년의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 조선족 전통복식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자 한복은 회장저고리가 다시 유행하였으며 저고리 길이는 전에 비해 짧아졌다. 저고리 옆 선도 조금 짧아졌으며 품과 소매통이 많이 넓어졌고 배래는 곡선으로 나타났다. 옷깃 길이가 조금 길어졌고 파임도 깊어졌으며 옷깃 나비와 옷깃 나비가 좁아졌고 동정 너비도 전 시기에 비해 좁아졌다. 옷고름의 길이는 길어지고 넓어진 모양을 나타내었다(그림 13)(이광규, 1996).

치마의 길이는 다양했으며 꼬리치마나 통치마를 주로 입었다. 꼬리치마는 전체적으로 길고 대부분 발등을 가렸으며 좌우 쪽으로 잘게 주름을 잡고 발뒤축까지 길게 드리우도록 만들었다. 통치마는 보통 무명 8폭 정도의 너비로 만들었는데 치마를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유행되면서 12폭이나 그 이상으로까지 넓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통치마는 그 길이에 따라 무릎을 가리는 짧은 치마나 종아리를 가리는 중간치마와 발등을 가리는 긴치마 등 여러 형태의 치마가 있었다. 그 밖에 치마 아랫단에 금실로 수를 놓거나 금박으로 문양을 장식한 비단 치마나 부엌일을 할 때 두르는 행주치마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속옷의 경우, 겹치마 안에 입었던 속속곳, 바지, 단속곳 등은 사라지고 치마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배색방식은 대단히 다양하였는데 나이와 상관



〈그림 22〉 1992년 한복차림의 여성들

(출처: 김림성 연길시 한미화씨 제공, 2020.)



〈그림 23〉 1990년대 한복차림의 노부부

(출처: 중국조선족민속사진록(p.184) 중국연변조선족생태문화발전회, 2012,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그림 24〉 2000년 다양한 한복차림의 여성들

(출처: 김림성 룡정시 김옥금씨 제공, 2020.)

없이 난색인 분홍색, 노란색, 다홍색 등의 여성스러운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흰색 저고리에 다양한 색상의 치마를 맞춰 입기도 하였다.

소재도 전 시기보다 매우 다양하였는데 직물에 무늬를 넣은 다마스쿠<그림 14>, 번 아웃<그림 15>과 라셀<그림 16> 등 소재를 특히 선호하였으며 나이 든 여자들은 여름에 흰색 모시로 만든 치마와 저고리를 즐겨 입었다.

남자 한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4년에 간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항 자료>에서는 “남자들은 가랑이를 넓게 만든 바지를 입고 바지의 발목이 닿는 부분을 대넒으로 줄라매며 위에는 저고리 색상과 구분되는 컬러풀한 조끼를 받쳐입으며, 외출 시에는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청장년들은 회색이나 검은색의 바지를 입고 저고리의 깃 위에는 흰 천으로 동정을 단다”라고 서술하였다.

남자 저고리는 깃, 쇄, 동정과 고름이 달려있어 형태상 여자 저고리와 비슷하나 길이가 길고 품이 넓으며 옷고름이 짧은 점에서 구별된다.

남자 바지는 가랑이가 넓고 가랑이 끝을 여미고 대넒을 매게 되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할 시에는 저고리와 바지만 입고 <그림 17> 겹옷은 생략하였다.

겹옷으로 입는 두루마기<그림 18>는 외출 시 겹옷이나 예복으로 입으며, 형태가 저고리와 같으나 길이가 매우 길며, 여름에는 얇은 소재를, 겨울에는 두꺼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저고리 위에 입는 조끼는 양복 조끼를 수용하여 민족 복식에

어울리게 개조한 것인데 민족 복식에서 빠질 수 없는 의복으로 되었다. 중·노년층 남자들은 흰색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저고리 위에 검은색이나 토색(土色), 혹은 파란색의 조끼를 입는 것을 선호하였다(그림 19).

머리에는 중절모를 쓰고 신발은 고무신을 신거나 구두를 신었다.

의복 장식품으로는 마고자나 등거리에 다는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는 실용성보다 장식적 의미가 더 강하다. 장식 단추는 금, 은, 옥, 호박 등을 재료로 하여 사각형 또는 매미 형 등으로 만들었다. 그중 호박으로 만든 매미 형의 단추가 가장 많이 애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복식 미가 조선족들에게 인식되어 저고리 길이가 많이 짧아지고 치마의 폭은 넓어지고 A라인 형의 치마가 유행하며 길이는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입었으며(그림 20) 예전에 비해 고급스럽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한국화 현상이 뚜렷하였다(안명숙 외, 2006). 이 시기에는 한국산 노방, 본견 등 고급소재를 사용한 깨끼저고리가 유행하였는데 두 겹으로 된 저고리는 고급스러움과 풍성한 아름다움을 더 나타내었다. 장식적인 요소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회장저고리의 회장에 금박으로 문양을 장식하거나 어깨에 옛 왕족과 백관의 가슴에 붙이던 보(補) 문양으로 수를 놓기도 하였다(그림 21).

1990년대 한복의 색상은 남색, 연분홍, 진분홍, 녹색, 빨간색, 수박색, 보라색 등 갖가지 색



〈그림 25〉 2017년 다양한  
한복차림의 여성들

(출처: 길림성 도문시 현수연씨 제공, 2020.)



〈그림 26〉 2010년대 여성한복  
배자차림

(출처: 두만강문화영상기록(p.240)류재학, 2015,  
연갈:연변인민출판사.)



〈그림 27〉 2008년 한복차림

(출처: 중국연변의 풍속(p.29)연변조선족민족  
사무위원회, 2006, 연갈:연변인민출판사.)



〈그림 28〉 2009년 한복차림

(출처: 두만강문화영상기록(p.300)  
류재학, 2015, 연갈:연변인민출판사.)



〈그림 29〉 2013년 한복차림

(출처: 두만강문화영상기록(p.341) 류재학, 2015,  
연갈:연변인민출판사.)



〈그림 30〉 2020년 한복차림

(출처: 필자촬영사진, 2020.)

의 치마에 노란색, 색동, 연분홍 등 여러 가지 색의 저고리를 맞춰 입었으며 동색이나 이색으로 배색하되 채도가 높은 원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다. 장식성 면에서도 색동, 금박, 나 염, 수놓이 등 다양하였고 깃과 고름을 다른 색의 소재로, 혹은 여러 가지 꽃무늬를 인화하여 장식하기도 하고 소매 끝과 치마 끝단을 그라데이션 방식으로 염색하기도 하였다.

소재는 면섬유, 견섬유 등의 천연섬유와 합성 섬유 옷감이 다양하게 생산되었고 천연섬유보다는 세탁하기 쉽고 간편한 합성섬유 옷감을 더 선호하였다. 특히 초치사(乔其纱, 얇은 본건 크레이프직물)라 불리는 아주 얇은 옷감이 유행하면서 이전에 홑겹이었던 치마가 변화되어 안에 한 겹의 옷감을 더 넣는 겹치마가 유행하였다(김순심, 1994). 구름문양이나 꽃문양을 수놓은 소재를 많이 애용하였고 초치사 외에도 인견, 금실을 섞어서 짠 폴리에스테르직물, 나일론 등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 겨울에는 벨벳(그림 22), 뉴퐁, 공단 등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화려하고 다양한 한복이 유행하였다. 특히 얇게 비치는 한국산 깎갈이 천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비해 소재가 고급화되었고 디자인은 더욱 단순해졌다(장순애, 1999).

머리꾸밈새는 제한 없이 개인의 취향대로 다양하였으며 쪽진 머리에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든 비녀를 꽂기도 하였으며(그림 21) 퍼머넌트뿐만 아니라 헤어젤이나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한 다양한 머리 형태를 연출하였다.

신발은 한복을 입을 때 통기성이 좋지 않은 코고무신을 신지 않고 신식 샌들이나 구두를 즐겨 신었다.

남자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겉옷으로 입는 두루마기는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기본으로 입는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는 예전 시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노년층 남성들이 예전에는 흰

〈표 1〉 시기별 한복의 종류 및 일부 특징

분류	해방전 시기 (19세기말~1948)	신중국 시기 (1949~1965)	문화대혁명 시기 (1966~1976)	개혁·개방 시기 (1978~2020)	
형태	여자 한복	저고리 길이 짧아짐, 옷고름 넓고 길어짐, 배래 넓고 곡선임, 도련 직선으로 변함, 회장저고리 유행, 배자, 마고자, 주름 많고 폭이 넓은 치마, 꼬리치마, 몸빼, 넓은 바지, 내복 종류 내외	저고리 길이 짧아짐, 옷고름 넓고 길어짐, 배래 넓고 곡선임, 도련 직선으로 변함, 회장저고리 유행, 배자, 마고자, 주름 많고 폭이 넓은 치마, 꼬리치마, 몸빼, 넓은 바지, 내복 종류 내외	회장저고리 유행, 저고리 길이 다양, 폼과 소매통 다양, 배래 곡선과 직선 다양, 옷길 길어짐, 옷길 직선과 곡선 다양, 동정 너비 좁아짐, 옷고름 너비와 길이 다양, 긴 꼬리치마와 통치마, 치마허리 달린 속치마, A라인 치마, 소매 끝동 다양. 합임 개량한복 유행	
	남자 한복	소매 짧은 저고리, 길이 짧고 통이 좁은 바지, 조끼, 두루마기, 중산복, 양복	중산복 착용, 마고자 일부 착용, 두루마기 일부 착용, 스프링코트 유행	일부 노인들 한복 착용	저고리, 바지, 조끼, 두루마기 착용, 저고리 기장 길어짐, 옷길 직선과 곡선 다양, 전통배자 착용,
색상 및 소재	색상	흰색 주로 입음, 검정, 회색, 황토색, 옥색 등 다양	자홍색, 노란색, 미색, 갈색 등 난색 사용, 녹색, 남색 등 찬 색 사용, 흰색, 검정색, 회색 무채색 사용	흰색과 검은색 위주	노인들 흰색, 청장년들 회색, 검은색, 채도가 높은 흰색 사용, 여자들 난색 계열 사용, 명도와 채도 고려한 배색
	소재	삼베, 모시, 무명 위주, 일부 비단과 모직품, 고급광목	모시, 삼베, 무명, 광목, 옥양 목, 비단, 모직물, 스웨이드, 양가죽, 양털, 토끼털, 나일 론, 양단, 벨벳, 명주 등 다양	면직물과 마직물 위주, 무명 대부분, 면과 폴리혼방직물 (디치량), 벨벳	다마스크, 번 아웃, 라셀, 실크, 본건, 가볍고 투명한 소재
머리 꾸밈 새 및	여자 머리	미혼은 땡기머리, 기혼은 쪽진 머리카 없은 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 흰색 두건 두름	단발머리, 땡은 머리 유행, 퍼머넌트	땡은 머리, 앞 머리내림, 쪽 진 머리, 단발머리, 일부 퍼 머넌트	쪽진 머리, 퍼머넌트, 자유로운 헤어스타일
	남자 머리	하이칼라머리, 삭발머리, 상투쪽진 머리, 흰수건 두름, 흑립착용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자유로움
신발	여자 신발	짚신, 미투리, 고무신, 버선	짚신, 미투리, 나막신, 코고 무신, 천신, 고무장화, 양말	검은 천신, 녹색 해방화, 비 닐 샌들, 흰색 코고무신	수놓이 가죽 코신, 하이힐, 기타
	남자 신발	짚신, 미투리, 고무신, 버선	짚신, 미투리, 나막신, 천신, 고무장화, 양말	검은 천신, 녹색 해방화	태혜사 신발, 구두, 기타

색 저고리와 바지를 즐겨 입었으나 점차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으며(그림 23), 곁에 입는 조끼의 색상도 훨씬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소재 또한 전보다 더욱 고급스러워졌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조선족의 전통복식은 더욱 다양해졌다. 여자 한복의 저고리 길이는 전보다 다양해졌다. 옷깃은 길고 넓어졌으며 동정은 예전에 비해 좁아졌고 옷깃이나 소매 끝동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였다. 옷고름은 넓고 길어졌으며, 풍성한 곡선 배래와 소매를 선호하였다.

치마는 통치마에 촘촘히 주름을 놓고 여러 겹으로 입어 풍성함을 더하였다(그림 24).

2010년대의 여자 한복의 특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옷깃은 직선 옷깃과 곡선 옷깃으로 다양하였으며 옷고름은 좁고 짧아졌다. 소매는 배래 곡선의 폭을 좁게 하고 소매의 끝등을 넓게 하여 산뜻함과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개량 한복도 많이 나타났는데 옷고름 없이 혹은 단추로 여밈을 주거나 동정을 달지 않은 것도 선호하였다.

치마는 허리 부분을 촘촘하게 주름을 잡고 아랫단을 폭넓게 펼쳐 A라인 형의 형태로 만들며 속치마로 무지기를 입어 안정감 있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되도록 하며 상체는 가냘프고 작아 보이게 하며 하체는 풍성한 볼륨을 주어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다. 치마를 여러 층으로 겹쳐 입음으로 풍성함을 추구하였다. 치마의 어깨허리를 길게 하여 바탕에 여러 가지 모양의 꽃무늬를 수를 놓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다. 치마의 웨스트라인을 한층 내려 촘촘히 주름을 놓음으로써 서양식 드레스를 연상시켰다(그림 25).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배자를 즐겨 착용하였는데(그림 26) 둥근 깃에 합입이며 매듭단추로 여미었다. 연녹색의 배자는 붉은색 치마와 어울려 전통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배자의 앞 중심에는 다양한 꽃문양으로 수놓아진 장식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자 한복은 전 시기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적인 저고리와 바지, 조끼 착용 외에 다른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마고자 차림(그림 27)의 한복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꽃무늬를 수놓아 장식하고 금속 단추로 여밈을 주며 명도가 높은 저고리와 바지에 짙은 남색을 배색하여 마고자의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예전에는 잘 착용하지 않았던 전통배자를 즐겨 착용하며 배자의 둥근 깃에 흰색으로 장식 띠를 둘러주고 양옆에 호주머니를 달거나 밝은 색의 단추로 포인트를 주어(그림 28) 많은 장식적인 요소를 더 하거나 배자의 중심 부분에 장식 띠를 둘러주고 리본을 엮어줌

으로 옷고름과 같은 효과(그림 29)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최근의 남자 한복은 저고리 기장을 전보다 더 길게 하고 저고리의 앞길, 뒷길과 소매를 다른 색으로 배색하거나 혹은 다른 소재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그림 30) 앞 중심 부분에 보(補)문양으로 장식하거나 허리 중심선에 띠를 띄워 주기도 한다. 저고리의 옷깃은 직선으로부터 곡선으로 네크라인에 맞게 변하였으며 넓은 바지가랑이와 행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현재는 급속하게 발전한 섬유 직물산업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족한 의생활을 누리며 대도시와 지방농촌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어 의생활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한복 소재로 실크나 본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누에고치를 이용한 천연섬유로서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처럼 견직물 사용 도가 높은 것은 동물성 특유의 광택과 질감이 한복의 우아하고 세련된 멋을 더욱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화학섬유 소재도 눈으로 봤을 때 실크와 별 차이 없어 많이 애용하고 있다. 특히 상의는 투명하고 비치는 소재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한복 소재의 염색, 무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현시대의 감각에 맞는 색채배합, 장식첨가 등으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한복배색은 예전의 유행에 따르지 않고 배색의 원리에 맞게 저고리와 치마, 옷고름을 구분하여 인근색상 배색이나 유사색상 배색, 혹은 대비색상 배색 등 색채원리를 통한 배색으로 더욱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명도나 채도 등을 모두 고려한 배색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머리꾸밈새의 경우, 여자들은 한복을 입을 때는 주로 쪽진 머리를 많이 하지만 전 시기보다 매우 자유로워진 편이며, 남자들의 머리꾸밈새는 변함없이 자유로운 편이다. 여자 신발은 한국에서 수입한 수를 놓은 가죽 코신이나 하이힐을 많이 착용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태사혜 신발을 신거나 구두를 신지만 자유롭게 다양한 신발을 착용한다.

개혁·개방 시기의 조선족 남녀 한복의 형태, 색상, 소재, 머리꾸밈새, 신발 등 종류와 특징은 <표 1>과 같다.

## V. 결론

본문은 19세기 말부터 2020년까지 조선족 전통복식의 변화과정을 해방전 시기, 신중국 시기, 문화대혁명 시기, 개혁·개방 시기 총 네 시기로 나누어 복식의 형태, 색상 및 소재, 머리꾸밈새 및 신발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요약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식의 형태에서, 여자 저고리는 해방전 시기에는 허리선 길이, 넓고 짧은 옷깃, 넓은 흰색 동정, 곡선 도련, 넓은 폭과 수구의 소매, 직선 배래, 짧은 옷고름의 형태이며, 신중국 시기에는 짧은 길이, 넓거나 좁은 동정이 공존하고, 넓고 긴 옷고름, 넓은 곡선 배래, 직선 도련의 형태이며,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짧은 옷깃, 넓고 짧은 동정, 높게 달린 옷고름의 형태이며, 개혁·개방 시기에는 짧은 것과 긴 저고리가 공존하고, 품과 소매통도 넓은 것과 타이트한 것이 공존하며, 좁은 옷깃, 곡선 배래, 좁은 동정, 넓고 긴 것과 좁고 짧은 옷고름이 공존하였다. 또 한 옷깃이 합입이거나 동정 없는 옷깃, 혹이나 단추로 옷고름을 대신하는 개량 한복 형태도 있다.

치마는 해방전시기에는 통치마이며 폭이 좁고 주름이 적고 길이가 짧다. 속옷으로 속속곳, 단속곳, 밑 트임 있는 바지를 입었다. 신중국 시기에는 주름이 많고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통치마와 꼬리치마의 형태다. 속옷으로는 몸빼, 통 넓은 바지, 내복 종류의 내의를 입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통치마는 주름이 적고 폭이 넓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시기는 주름이 많고 넓은 아랫단의 A라인 형의 치마, 긴 꼬리치마, 짧고 넓은 통치마 형태이며, 치마허리가 달린 속치마와 무지기를 입었다.

남자저고리는 해방전 시기에는 길이가 길며, 넓은 품, 짧은 소매에 바지는 짧은 길이, 좁은 통에 바지 부리를 접어 올렸으며, 겨울에만 행진(行纏)을 매었다. 신중국 시기에는 일부 중·노년층만 저고리와 바지, 마고자와 두루마기를 입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일부 노인들만 한복을 입었

다. 개혁·개방 시기의 저고리는 길이가 길고 품이 너르며, 직선과 곡선의 옷깃 형태가 공존하며, 저고리 위에 조끼, 배자,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었다. 특히 저고리의 앞길, 뒷길과 소매를 다른 색 혹은 다른 소재로 배색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식하였다. 바지는 넓은 바지 가랑이와 행진을 유지하였다.

2. 복식의 색상 및 소재에서, 색상은 해방전 시기에는 흰색이 가장 많고 검정, 회색, 황토색, 옥색 등 다양한 색도 있었으며, 신중국 시기에는 이색배색방법을 사용하고 연분홍색, 자홍색, 황색, 미색, 남색, 회색, 흰색, 담청색, 검은색, 갈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흰색,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개혁·개방 시기에는 채도 높은 난색 계열의 원색과 흰색 저고리에 다양한 색상의 치마를 배색하였으며, 현재는 남녀 복식 모두 배색의 원리에 맞게 명도나 채도를 고려한 인근색상 배색이나 유사색상배색, 혹은 대비색상배색 등을 사용하고 있다.

소재는 해방전 시기에는 삼베, 무명, 모시, 비단, 모직품, 고급 광목천을 사용하였으며, 신중국 시기에는 모시, 삼베, 무명, 광목, 옥양목과 나일론, 양단, 벨벳, 명주를 사용하였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면직물, 마직물, 무명, 디취량(的确良), 벨벳 소재를 사용하였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천연섬유 소재와 무늬가 있는 다마스크, 번 아웃, 라셀 종류의 합성섬유 소재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실크나 본건 등 가볍고 비치는 천연섬유나 고급스러운 화학섬유도 즐겨 사용한다.

3. 머리꾸밈새와 신발에서, 머리꾸밈새는 해방전 시기 처녀들은 땡기 머리를, 기혼여자들은 쪽진 머리와 엷은머리를, 학생들은 단발머리를, 기혼이나 노인들은 흰색 두건을 들었다. 남자들은 하이칼라나 삭발 머리를, 일부 노인들은 상투를 쪽졌다. 신중국 시기에는 여자들은 단발머리, 양갈래머리, 외태머리, 퍼머넌트 머리를 하였고 남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여자들은 앞머리를 내리고 양 갈래로 땅아 넘긴 머리, 쪽진 머리, 단발머리, 퍼머넌트를 하였으며 남자들은 변화가 없었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여자들은 한복을 입을 때에만 쪽진 머리를 많이 하지만 남녀 모두 규제 없이 자유롭다.

신발은 해방전 시기에는 남녀 모두 짚신, 미투

리, 고무신을 신었으며, 신중국 시기에는 짚신, 미투리와 나막신, 코고무신과 천신, 고무장화를 신었고 양말을 신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천신, 해방화, 비닐 샌들, 흰색 코고무신을 신었으며, 개혁·개방 시기의 여자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수를 놓은 가죽 코신이나 하이힐을 신었으며 남자들은 태사혜 신발, 구두 등 다양하게 신는다.

총 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여자 저고리는 저고리, 옷깃, 옷고름 등 길이의 변화가 있었고, 옷깃, 동정, 소매, 옷고름 등 너비의 변화가 있었으며, 옷깃, 배래 등은 직선과 곡선의 변화가 있었다. 치마는 주름, 길이와 실루엣의 변화가 있었다. 남자 저고리는 소매의 길이, 옷깃의 직선과 곡선의 변화 있었고, 바지는 넓이와 길이의 변화가 있었다.

한복의 소재는 과거에는 천연섬유 소재를 주로 사용하다가 방직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섬유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현대에는 고급스러운 천연섬유 소재를 즐겨 사용한다. 한복의 색상은 과거에는 무채색계열을 주로 사용하다가 합성섬유의 등장과 함께 채도가 높은 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현대에는 색채의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색채를 즐겨 사용한다. 그밖에 머리꾸밈새와 신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부터 현대로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본 문의 연구의 한계점은 조선족 1, 2세대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1960년대 이전의 사진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가 많지 않았다. 수집한 자료 중 남성복 사진이 비교적 빈약하여 결론의 일반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문은 조선족 전통복식 중 일상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후속연구로 조선족 전통의례복식의 변화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김순심. (1994). *中国延边朝鲜族의 服饰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구, 김순심. (1993). 중국 조선족의 복식연구. *복식학회*, 20, 198.
- 김춘선, 김철수. (2008). *중국조선족통사(상)*.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김춘선, 김철수. (2009). *중국조선족통사(중)*.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김춘선, 김철수. (2010). *중국조선족통사(하)*.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박경휘. (1994). *중국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 서울: 집문당.
- 백가. (2015). *중국조선족의 여자한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숙, 김용서. (2006).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 여월. (2011). 중국의 패션산업 및 교육현황. *패션정보와 기술*, 8(1), 19-34.
- 이광규. (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장순애. (2000). *中国 黑龙江省 朝鲜族의 服饰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명용. (1998). 중국문화대혁명과 중국문화. *강남대학교 논문집*, 32, 281-299.
- 정안, 이동훈. (2008). 개혁·개방정책전후 북경시 환경조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699-702.
- 현규환. (1976). *한국류이민사*.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 훈춘현지. (1926). *조선족풍속*. 레속(2). 복식, 17.
- 千寿山, 金钟国. (1996). *中国朝鲜族风俗*.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p.32.
- 王慕宁. (1929). *东北三省之实况*. 北京: 中华书局. p.36.
- 韦荣慧. (2004). *中国少数民族服饰*. 北京: 中国画报出版社. p.37.
- 张凤台. (1909). *长白汇征录*. *韩桥风俗*. 宣统原年, 卷四.